

# 최근 거시경제 여건 점검

김미루(KDI)

국민경제자문회의

Jun. 2026

# Table of Contents

## 1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 정책방향
- 요약 및 평가

## 2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경제 동향
- 세계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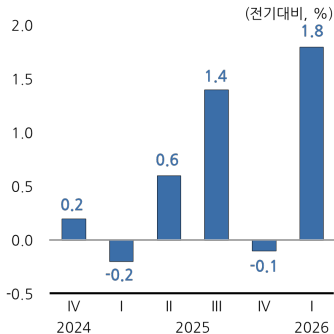
# Table of Contents

- 1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 정책방향
    - 요약 및 평가
- 2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경제 동향
  - 세계경제 동향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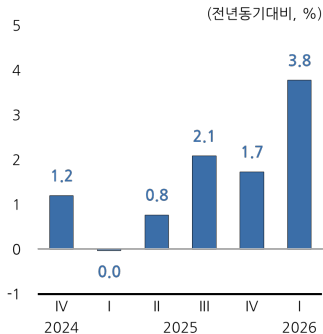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
  -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전기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로도 전분기(1.7%)보다 높은 3.8%의 증가율을 기록

###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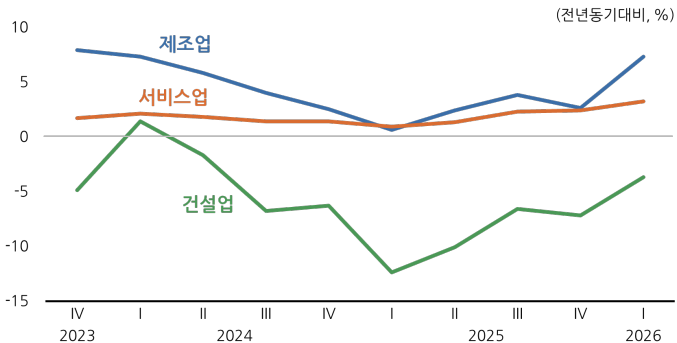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
  -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개선된 가운데, 제조업이 반등하고 건설업의 부진은 완화

### 경제활동별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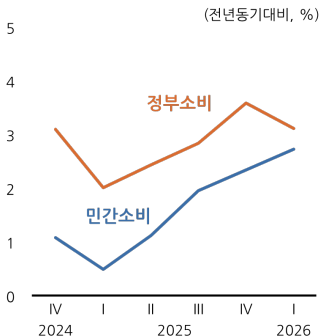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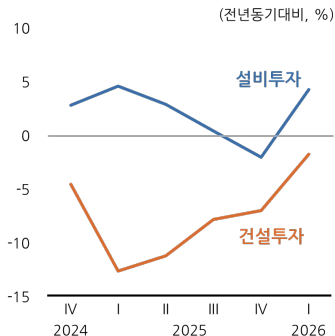
- 내수는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중동 전쟁으로 하방 위험이 확대
  - 소비 회복이 지속된 가운데,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개선되었으며 건설투자의 부진도 완화

##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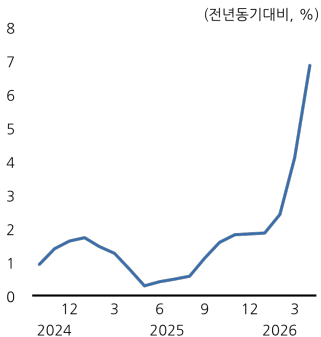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내수는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중동 전쟁으로 하방 위험이 확대
  - 그러나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 생산자물가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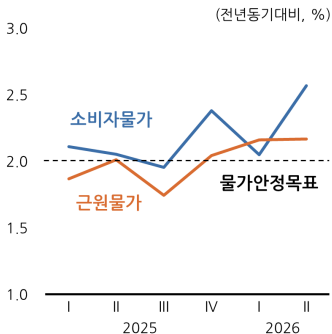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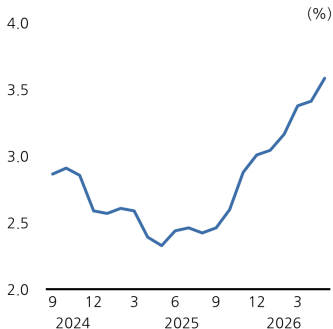
- 내수는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중동 전쟁으로 하방 위험이 확대
  - 이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던 물가상승률이 다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상승하는 모습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주: 2026년 2/4분기 물가상승률은 4월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 국고채(3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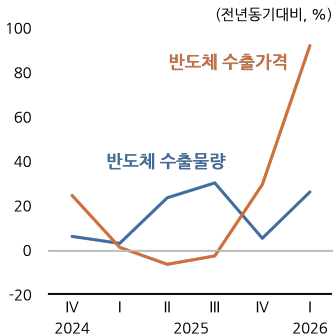


주: 2026년 5월 금리는 1~11월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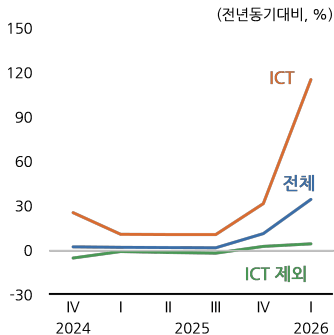
-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경기 호조로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ICT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

## 반도체 수출물량과 수출가격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품목별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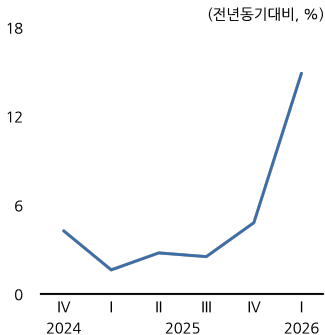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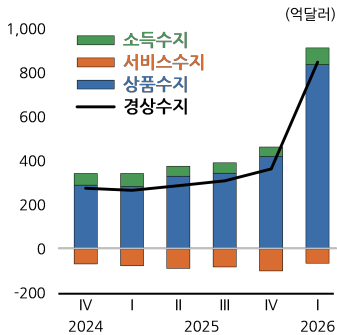
-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경기 호조로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반도체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수출 물량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

## 교역조건(수출가격/수입가격)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 계절조정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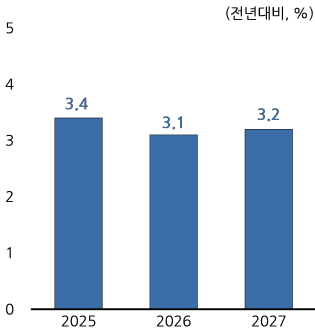
- 대외 여건을 보면,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글로벌 성장세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반도체경기 호조는 지속될 가능성
  - 국제유가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IMF는 중동 전쟁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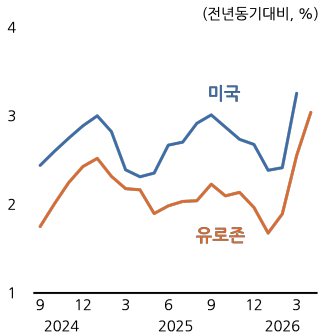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6.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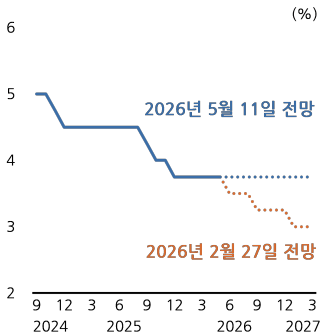
- 대외 여건을 보면,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글로벌 성장세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반도체경기 호조는 지속될 가능성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미국 기준금리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블룸버그.

##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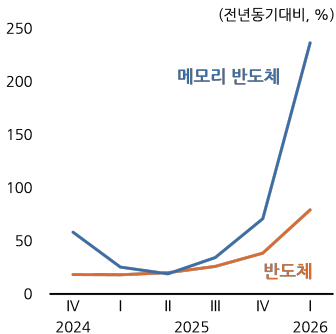


자료: FedWatch.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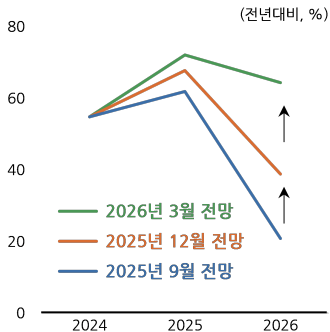
- 대외 여건을 보면,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글로벌 성장세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반도체경기 호조는 지속될 가능성
  - 그러나 최근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높은 수요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



자료: WSTS.

### 주요 AI 기업 자본지출 증가율 전망



주: 주요 AI 기업은 Alphabet, Amazon, Meta, Microsoft, Oracle을 의미함.

자료: 블룸버그.

# Table of Contents

## 1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 정책방향
- 요약 및 평가

## 2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경제 동향
- 세계경제 동향

#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2026~27년 세계경제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여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5년(3.4%)보다 낮은 3.1%, 3.2%로 각각 전망
  - IMF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 2.5%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함.

2026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중동 전쟁으로 2025년(배럴당 69달러)보다 높은 91달러를 기록한 후 2027년에는 82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6년에 반도체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로 2.5% 정도 성장한 후, 2027년에도 1.7%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

- 2026~27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민간소비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금년과 내년에 각각 2.2%, 1.5% 정도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설비투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미약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세에 따른 높은 투자 수요로 금년과 내년에 각각 3.3%, 2.4% 정도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에 미미하게 증가(0.1%)하다가 내년에는 1.1% 정도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수출은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금년에 4.6% 정도 증가한 후, 내년에도 2.2% 정도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상품수출은 금년과 내년에 각각 4.5%, 1.8% 정도 증가할 전망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따라 이례적 수준의 대규모 흑자가 전망됨.

- 상품수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2,500억달러, 2,300억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됨.
- 서비스수지, 본원이전 소득수지는 해외투자 확대로 본원소득수지 흑자 추세가 유지되겠으나, 서비스수지 적자 추세도 지속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과 내년에도 100억달러대의 적자폭이 지속될 전망
-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2,400억달러, 2,100억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경기 회복세가 더해지면서 금년에 2.7% 정도 상승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2% 정도로 상승폭이 일부 축소될 전망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내수 회복으로 금년과 내년에 각각 2.5%,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로 취업자 수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17만명 증가하며 완만한 고용 개선세를 유지할 전망

- 실업률도 2.8%의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의 위험요인

## 반도체 공급 능력이 빠르게 확충되는 경우 경제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향후 반도체 공급 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물량 기준인 경제성장률도 함께 확대될 수 있음.

## 중동 전쟁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과 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

-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에 생산 비용 상승이 파급될 수 있음.

# Table of Contents

## 1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 정책방향
- 요약 및 평가

## 2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경제 동향
- 세계경제 동향

# 통화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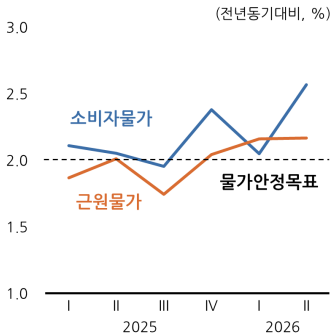
통화정책은 경기 개선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수요 측 물가 상방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급 측 물가 압력도 상당폭 확대
  - 중동 전쟁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나, 소득 개선 및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는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 전쟁 이전에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가능성을 시사
  - 한편,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으로 확대
- 따라서 통화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 근원물가 상승률이 아직 2%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중동 전쟁 양상에 따라 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상당폭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
  - 이와 함께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상승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 통화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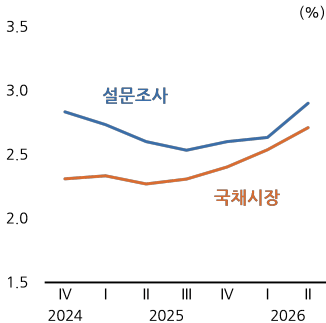
통화정책은 경기 개선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 기대인플레이션



주: 국채시장 기대인플레이션은 10년물 기준이며, 2026년 2/4분기는 4월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 재정정책방향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 제고 및 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지출하는 가운데, 지출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9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1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령 개편이 요구되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재정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특히 기초연금을 취약 노령층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할 필요

# Table of Contents

## 1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 정책방향
- 요약 및 평가

## 2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경제 동향
- 세계경제 동향

## 요약 및 평가

우리 경제는 2026년에 반도체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로 2.5% 정도 성장한 후, 2027년에도 1.7%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경기 회복세가 더해지면서 금년에 2.7% 정도 상승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2% 정도로 상승폭이 일부 축소될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로 취업자 수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17만명 증가하며 완만한 고용 개선세를 유지할 전망

## 2026~27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만명)

	2024 <sup>p</sup>	2025 <sup>p</sup>	2026			2027
	연간 <sup>p</sup>	연간 <sup>p</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2.0	1.0	3.1	1.9	2.5	1.7
총소비	1.4	1.8	3.1	2.1	2.6	1.8
민간소비	1.1	1.3	2.7	1.8	2.2	1.5
총고정투자	-0.8	-3.2	1.3	2.3	1.8	2.0
설비투자	1.7	2.0	3.6	3.0	3.3	2.4
건설투자	-3.3	-9.8	-1.1	1.2	0.1	1.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2.9	2.3	3.5	2.9	3.0
총수출(물량)	6.8	4.2	6.6	2.7	4.6	2.2
상품수출(물량)	6.4	3.2	6.8	2.3	4.5	1.8
총수입(물량)	2.5	3.8	5.1	3.3	4.2	2.7
상품수입(물량)	1.3	1.9	4.5	2.9	3.6	1.9

주: p는 잠정치임.

## 2026~27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만명)

	2024 <sup>p</sup>	2025 <sup>p</sup>	2026			2027
	연간 <sup>p</sup>	연간 <sup>p</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경상수지	1,000	1,231	1,278	1,112	2,390	2,137
상품수지	1,109	1,381	1,344	1,163	2,507	2,305
수출(금액)	7,040	7,189	4,603	4,670	9,273	9,278
(증가율)	9.6	2.1	34.5	24.0	29.0	0.1
수입(금액)	5,931	5,809	3,259	3,508	6,766	6,973
(증가율)	-0.7	-2.1	14.6	18.3	16.5	3.1
서비스수지, 본원·이전 소득수지	-109	-150	-66	-51	-117	-168
소비자물가	2.3	2.1	2.5	2.9	2.7	2.2
근원물가	2.2	1.9	2.3	2.6	2.5	2.3
취업자 수(증감)	16	19	18	17	17	17
실업률 (계절조정)	2.8	2.8	3.2	2.5	2.8	2.8

주: p는 잠정치임.

# Table of Contents

- 1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 정책방향
  - 요약 및 평가

- 2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경제 동향
  - 세계경제 동향

# Table of Contents

- 1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 정책방향
  - 요약 및 평가

- 2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경제 동향
  - 세계경제 동향

#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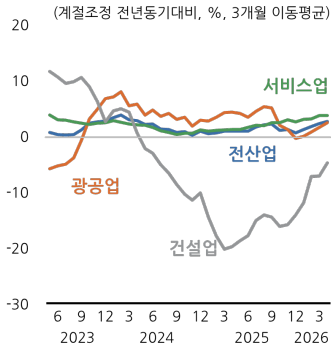
## 경기는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

- 4월 전산업생산(3.7%→2.4%)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
  -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는 전월의 높았던 상승률이 조정되며 0.6% 감소하였으나, 1 3월 평균 대비로는 0.4% 증가하며 개선세를 유지
  - 서비스업생산(3.5%)은 금융보험업(5.5%)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지속
  - 광공업생산(1.5%)도 반도체(13.0%)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 반면, 건설업생산(-5.8%→-5.5%)은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1.4%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
- 한편,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석유정제(-20.5%) 등 원유 수급에 민감한 부문에서 일부 가시화되는 가운데 생산자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

#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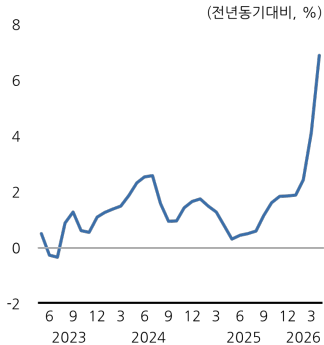
경기는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

## 산업별 생산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 생산자물가



자료: 한국은행.

#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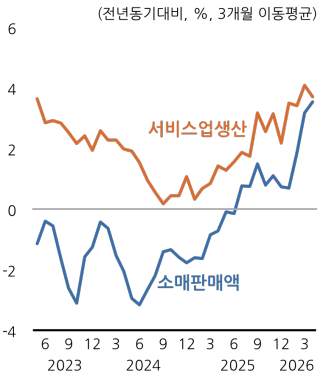
## 소비는 중동 전쟁 등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

- 4월 소매판매액은 전월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었으나, 소비의 개선 흐름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
  - 소매판매액지수(5.0%→1.6%)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지속
    - \* 소매판매액(3개월 이동평균, %): (2월) 1.9 → (3월) 3.2 → (4월) 3.6
  - 다만, 내구재(15.2%→1.6%)와 비내구재(1.4%→0.5%)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며 소비의 개선 흐름은 완만한 수준에 머무름.
- 한편, 5월 소비자심리지수(99.2→106.1)가 반등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해지며 소비 개선세는 지속될 가능성
  - 4월 말부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향후 소비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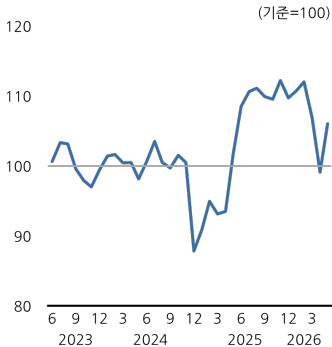
소비는 중동 전쟁 등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

## 소매판매액 및 서비스업생산



자료: 국가데이터처.

##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하방 위험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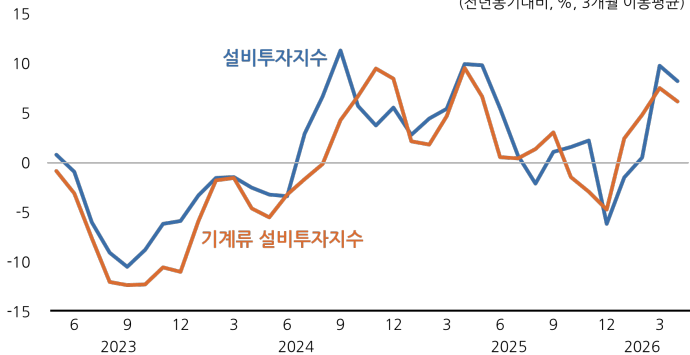
- 4월 설비투자(9.8%→8.1%)는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반도체제조용장비(41.1%)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선행지표인 5월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54.9%)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관련 투자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모습
  - 또한 일반산업용기계(0.1%→3.9%), 전기 및 전자기기(3.5%→5.1%) 등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도 상승폭이 확대
-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시장금리 상승세도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여건이 제약될 가능성

# 설비투자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하방 위험도 존재

## 설비투자지수

(전년동기대비, %, 3개월 이동평균)



자료: 국가데이터.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비용 상승은 향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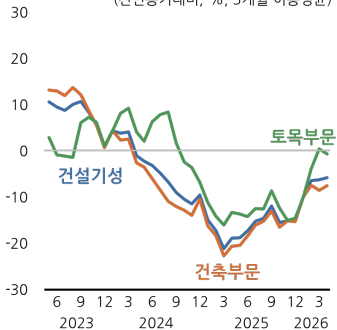
- 4월 건설기성은 전월(-5.8%)에 이어 5.5%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짐.
  - 건축부문(-7.7%→-6.4%)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되었고, 토목부문(-0.7%→-2.8%)도 감소폭이 확대됨.
  -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1.4% 감소하며 건설투자의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
- 한편, 건설비용의 가파른 상승세는 향후 건설투자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 중동 전쟁의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건설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건설기성 디플레이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 \* 건설기성 디플레이터(%): (2월) 2.1 → (3월) 2.8 → (4월) 4.6
  - 이에 따른 착공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화는 향후 건설투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비용 상승은 향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 건설기성(불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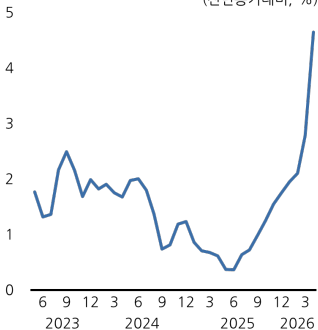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3개월 이동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 건설기성 디플레이터

(전년동기대비, %)



자료: 국가데이터처

#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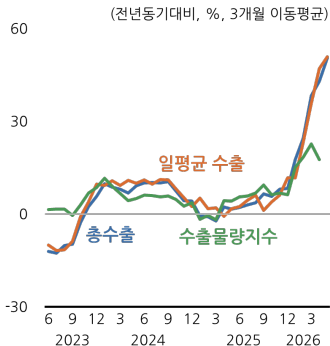
수출은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중동 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

- 5월 수출(53.2%, 일평균 60.7%)은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
  - 일평균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182.5%)와 컴퓨터(309.8%)가 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석유제품(53.8%)도 유가 상승에 기인하여 크게 증가함.
    - \* 일평균 물량 기준으로는 반도체(4월, 12.4%)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석유제품(-20.1%)은 원유 수급 차질로 감소세 지속
  - 지역별로는 미국(66.9%), 중국(89.7%) 등 주요 지역으로의 일평균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중동(-3.2%)은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감소
- 수입(20.8%)은 고유가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주요 에너지원(22.9%)이 증가한 가운데, 이를 제외한 품목(20.1%)도 반도체장비(71.0%)를 중심으로 증가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원유 도입 물량의 감소세(-22.8%→-25.0%)가 지속
-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69.5억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
- 한편,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어지며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

#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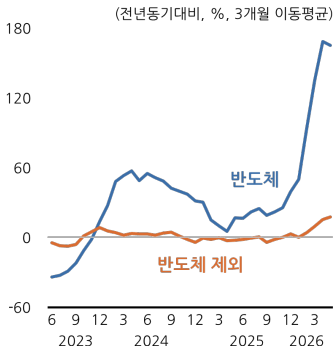
수출은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중동 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

### 총수출, 일평균 수출 및 수출물량지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일평균 반도체 및 반도체 제외 수출



자료: 한국은행.

#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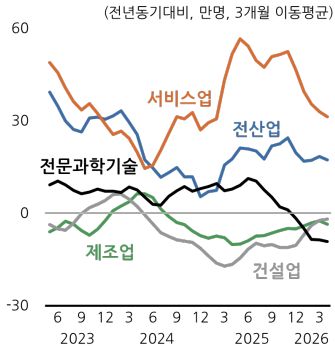
##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조정되는 모습

- 4월 취업자 수(20.6만명→7.4만명)는 서비스업(33.2만명→21.4만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고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운수 및 창고업(7.5만명→1.8만명) 등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이 조정되는 모습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도소매업(-4.4만명→-9.2만명)과 숙박 및 음식점업(-3.6만명→-4.8만명) 등 서비스업 임시직에서 고용 감소가 확대됨.
- 고용률이 20대를 중심으로 하락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
  - 20대 고용률(-0.8%p→-1.3%p)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14.4만명→-19.5만명) 감소폭이 확대되며 하락
  - 반면, 30 50대 고용률(0.8%p→0.7%p)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15~64세 고용률(계절조정, 70.0%)도 최근 3년 평균(69.7%)을 상회

#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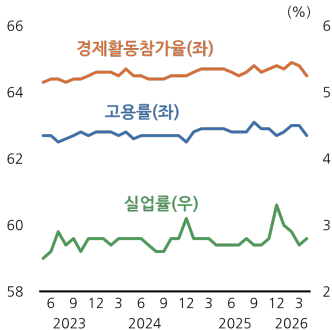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조정되는 모습

##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 주요 고용지표(계절조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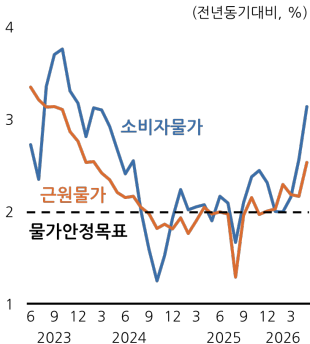
##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큰 폭으로 확대

- 5월 소비자물가는 상품물가(2.7%→3.5%)를 중심으로 전월(2.6%)보다 높은 3.1%의 상승률을 기록
  -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류(21.9%→24.2%)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 두바이유(배럴당 달러): (3월) 128.5 → (4월) 105.7 → (5월) 103.2
  - 한편, 농산물(-5.2%→-0.8%)은 기저효과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며 상품물가 상승폭 확대에 일부 기여
- 이와 함께, 근원물가 상승률도 전월(2.2%)보다 높은 2.5%를 기록
  - 항공료 등 유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근원물가 상승을 견인
  - 아울러, 고유가 지속으로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을 유지
    - \* 기대인플레이션율(한국은행 설문조사, %): (3월) 2.7 → (4월) 2.9 → (5월) 2.8

#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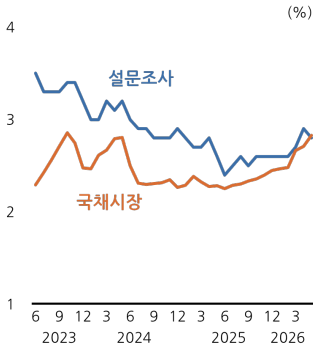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큰 폭으로 확대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 기대인플레이션율



주: '설문조사'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이며, '국채시장'은 10년물 국고채와 물가연동국고채 수익률의 차이임.  
자료: 한국은행.

# 금융시장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시장금리와 환율이 상승하였으나,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며 투자심리는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세는 유지

- 시장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상승세 지속
  - 국고채금리(3년, 월말, %): (2월) 3.04 → (3월) 3.55 → (4월) 3.60 → (5월) 3.73
-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로 전월말 대비 상승
  - 원/달러 환율(월말): (2월) 1,439.7 → (3월) 1,530.1 → (4월) 1,483.3 → (5월) 1,507.9
- 주가는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며 반도체 기업 중심의 급등세를 유지
  - KOSPI(월말): (2월) 6,244.1 → (3월) 5,052.5 → (4월) 6,598.9 → (5월) 8,476.2
  - 다만, 5월 월평균 KOSPI200 변동성지수(VKOSPI)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1월(70.3) 이후 최고치(68.8)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
- 또한 CDS프리미엄(4월 말 28.8bp→5월 말 22.2bp)과 신용스프레드(4월 말 65bp→5월 말 62bp)가 하락하며 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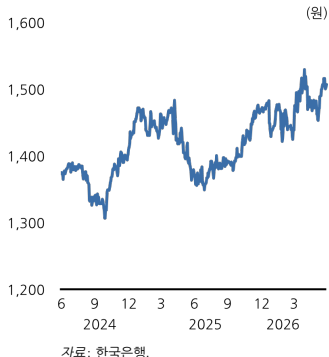
# 금융시장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시장금리와 환율이 상승하였으나,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며 투자심리는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세는 유지

## 금리 및 주가



## 환율



# 주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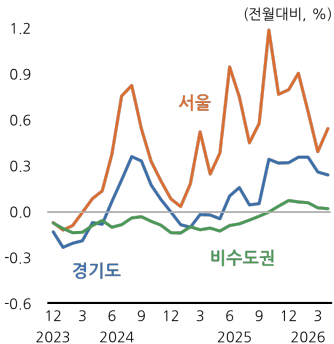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비수도권은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4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 0.27%→0.31%)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 경기지역(0.26%→0.24%)은 전월과 유사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0.39%→0.55%)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세를 주도
- 비수도권은 매매가격(0.03%→0.02%)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이어짐.
  - 전주(0.63%→0.60%), 울산(0.36%→0.37%), 창원(0.28%→0.31%)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지속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부진이 지속
- 전월세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모습
  - 수도권의 전세(0.41%→0.50%)와 월세(0.41%→0.51%)는 상승세가 확대된 반면, 비수도권의 전세(0.17%→0.14%)와 월세(0.18%→0.18%)는 전월과 유사한 모습
  - 수도권 주택준공(4월 누계, 3.7만호)이 최근 3년 평균(6.3만호)을 하회하면서 주거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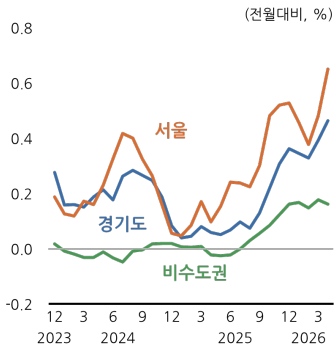
# 주택시장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비수도권은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주택매매가격



### 주택전월세통합가격



# Table of Contents

- 1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2026~27년 국내경제 전망
  - 정책방향
  - 요약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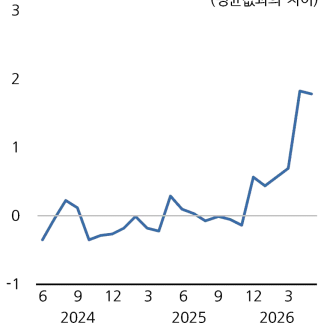
- 2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경제 동향
  - 세계경제 동향

# 최근 세계경제 상황

- 세계경제는 AI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 공급망 불안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
  - 고유가와 물류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었고, 최근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상품 교역 증가세가 크게 둔화

##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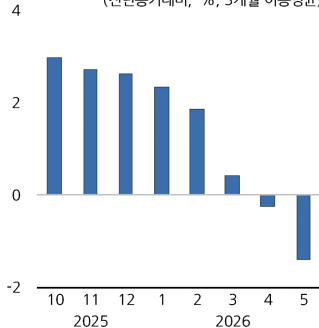
(평균값과의 차이)



자료: NY Fed.

## 글로벌 해상 교역

(전년동기대비, %,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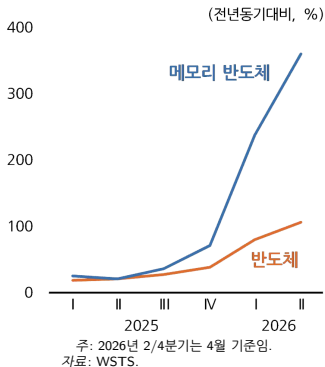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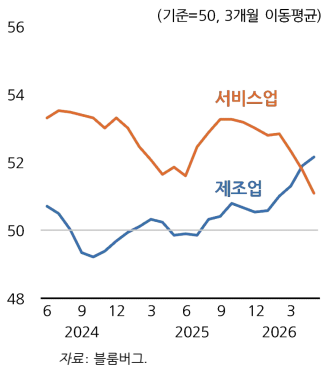
# 최근 세계경제 상황

- 세계경제는 AI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 공급망 불안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
  -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제조업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회복세는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

##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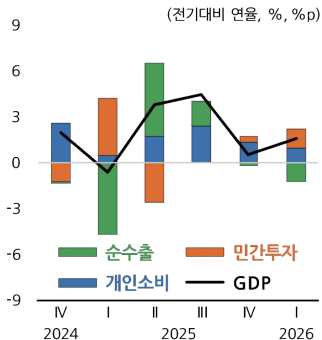
## 글로벌 심리지수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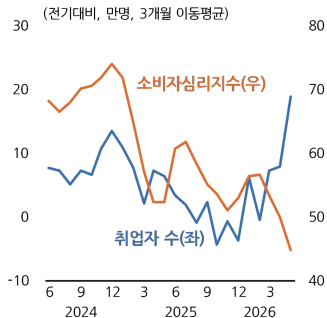
- 미국경제는 AI 관련 투자 지속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 상방 압력 확대와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
  - 제조업 생산과 상품 소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 업황도 양호한 모습이나,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심리는 위축

## 미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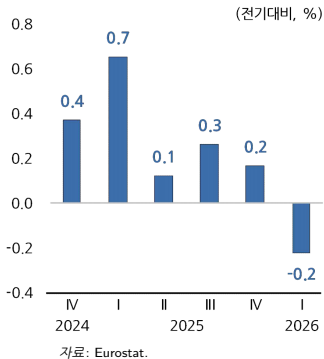
## 미국의 고용과 소비자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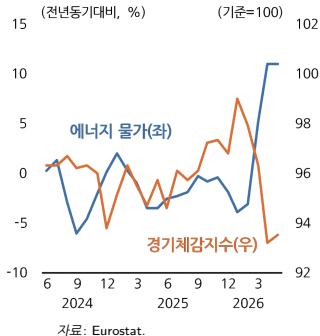
자료: BLS, 미시건대 소비자설문조사.

- 유로존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제 심리 악화로 반영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증대
  - 생산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안, 금리인상 전망 등 하방 위험 확대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 전망

##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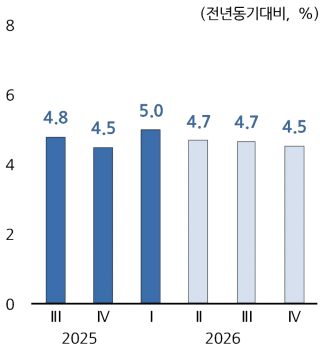
## 에너지물가와 경기체감지수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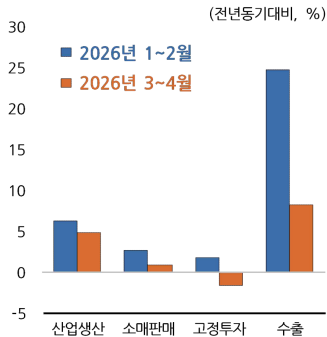
- 중국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다수의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내구재 소비와 첨단산업을 제외한 민간 투자는 감소

## 중국의 경제성장률



주: 2026년 2/4분기 이후는 주요 기관의 전망 중간값임.  
자료: CEIC.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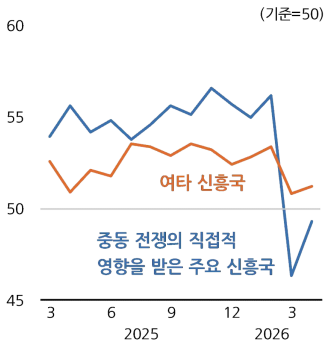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 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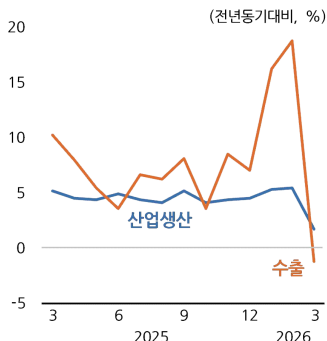
- 신흥국 전반으로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

### 신흥국의 산업생산과 수출



자료: CPB.

### 신흥국의 기업심리지수



자료: World Bank.

감사합니다.